

‘제주항공 참사’ 원인 규명·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한목소리

국토위 질의...로컬라이저 안전·조류 충돌 대책 등 집중 논의 국감 때 ‘대통령 관저 공사 의혹’ 증인 출석 안한 김태영 고발 의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이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집중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2016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볼류운송업체 UPS 항공기가 ‘오버런’(착륙 시 활주로 종단을 넘어가는 것)으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나 로컬라이저가 쉽게 부러지는 재질로 제작돼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또 시설 기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 등도 제기했다.

유력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조류 충돌’ 위험에 대한 미흡한 대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조류퇴치용 레이저·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총포류를 이용한 폭음 등 낙후된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며 “항공 선진국을 자부한다면 15개 공항에 전부 의무적으로 레이저 등 첨단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김은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제주항공의 정비인력이 국토부 권고기준인 ‘항공기 1대당 12명’에 못 미치는 7.5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비할 시간은 없고, 정비사는 부족한 사이에 승객 안전이 아닌 수익 극대화가 최우선이 되

면서 결국 이 참사를 부른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이 앞서 무안공항이 여러 차례 조류 충돌 사고 위험성을 지적받고도 실효적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새만금, 가덕도, 백령도, 제주2공항 등 신규 추진되는 공항 8곳이 이 모두 철세 도래지다.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현안 질의에는 박한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 대표 등 유가족들이 참석해 공정·투명한 사고 조사와 유가족의 조사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현장 수습 과정에서 소중했던 것은 유가족들의 인내와 절제였다”며 “국회도 맹성규 국토위원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번 편에 서겠다”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가짜뉴스로 유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김태영 21그램 대표에 대한 고발 건을 의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이 희생자를 애도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객기 참사’ 특위 내일 첫 회의

국회의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오는 16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한다.

특위는 첫 회의에서 위원회 구성과 여야 간사 선임, 소위원회 구성 등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위원장

을 맡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측이 14일 전했다.

위원으로는 국민의힘 김은혜·김대식·김미애·서천호·이달하·이성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권향업·문금주·손명수·위성근·전진숙·정준호 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이 선임될 예정이다.

여당 간사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야당 간사는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원인 규명, 재발 방지, 피해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활동 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연합뉴스

국힘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수사 대상서 빼야”

권성동 기자간담회...“자체 내란 특검법 야당과 협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외환 특검법) 분회

의 처리 계획과 위헌적인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당과 특검법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법에서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구체화된 법안을 발의한다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유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이 오늘 중으로 법안을 발의한다면 내일부터라도 논의가 가능하다. 법안 발의가 빠를수록 논

의도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한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그 전에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는 합의된 안으로 통과를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지금 내용은 안은 문자화된 법안이 아닌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의 개념 제시로 보인다”며 본격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먼저 여당의 실제 법안 발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외환 혐의 제외 등에 대해서도 여야 간 견해차가 커 향후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원외 조직 ‘혁신회의 광주지회’ 출범

더불어민주당 ‘진명’(진이재명) 원외 조직인 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가 광주지회 출범식을 열고 첫발을 다진다.

혁신회의는 “오는 19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지회 출범식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출범식에서는 광주지역에서 민주 정부 수립과 정당 혁신 등을 바라는 시민들이 모여 정치 개혁을 위한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혁신회의는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당 혁신, 정권 교체 등을 목표로 2

기 출범식을 열고 부산, 경남, 전북 등 지역별로 출범식을 가졌다.

광주혁신회의도 출범식을 통해 1980년 5월 광주를 되돌아보고 정치 개혁 등을 다짐할 계획이다.

출범식은 ▲1부 광주혁신회의 경과 보고·사업 계획 공유, 출범 선언문 낭독 ▲2부 혁신공동체 총회 ▲3부 강원원 혁신회의 상임 고문 초청 강연 순으로 진행된다.

/김혜나 기자 khn@

여의도 브리핑

“경호처, 경찰 지원 거절당하자 崔 대행에 SOS”

양부남 “경호부대에 먼저 전화”

대통령경호처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건너 뛰고 경찰 경호부대에 전화해 경찰력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 국회의원이 1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호처는 1차 집행이 이뤄지던 오전 9시 30분께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202경비단, 22경호대에 우선 전화를 걸어 관저 내 경찰 인력 투입을 요청했다.

101경비단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202경비단은 관저 외곽을, 22경호대는 대통령 근접 경호를 각각 맡고 있다.

또 1월 3일 오전 9시 30분께 101경비단에게 경호처 상황실로부터 경력배치 요청했고, 비슷한 시간에 경호본부가 22경호대에 경력배치 요청을 한 뒤 오전 9시 40분께 박종준 경호처장이 202경비단장에게 직접 경력 요청했다.

이들 세 부대는 “경력 배치 요청은 있었으나 부대 임무에 맞지 않아 서울청 보고 후 지침에 따라 일체 경력을 투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움직이지 않자 경호처는 지원권이 있는 최 대행에게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인 이호영 경찰청 차장에게 경찰의 관저 투입을 요청해달라는 취지였다. 최 대행은 오전 11시 48분께 이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호처와 경호부대와의 협조 상황 등을 물었지만, 경찰은 이후에도 경찰 배치를 하지 않았다.

양 의원은 “경호처가 경찰에 반복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려고 했다”며 “경호처가 ‘내란 수괴’를 보호하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하려 한 사실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옥상스틸방수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건물 리모델링 **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